

한 이단아가 일으킨 박물관의 혁명

토마스 호빙 지음 「춤추는 미이라」

수많은 역사자료와 예술품을 소장하고도 관람객을 끌지 못한다면 그 박물관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굳이 박물관의 사전적 의미를 들추지 않더라도 박물관의 기능 중엔 수집·보관 못지 않게 전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박물관인 경우 사회학습 기능을 강조할 땐 더욱더 그렇다.

1967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7대 관장에 취임한 토머스 호빙은 박물관이 '탐미의식의 전당' '예술사적 학문의 성역' 등 사회 엘리트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파기시킨 박물관 행정의 혁명가이다. "나는 박물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덧붙여 축제의 모습을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시피 흥행가적 큐레이터의 기질을 심본 발휘한 호빙은 휘하 큐레이터들에게도 짜릿한 재미를 주는 전시기획을 주문했다.

「춤추는 미이라」(“MAKING THE MUMMIES DANCE insid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447PP. New York: Simon & Schuster)는 우리시대에 걸맞은 박물관 스타일을 개발한 토마스 호빙의 '이단아'적 모습을 날뉘히 그려내고 있다. 그런 점은 60~70년대 발생한 새로운 문화현상에 대한 대처에서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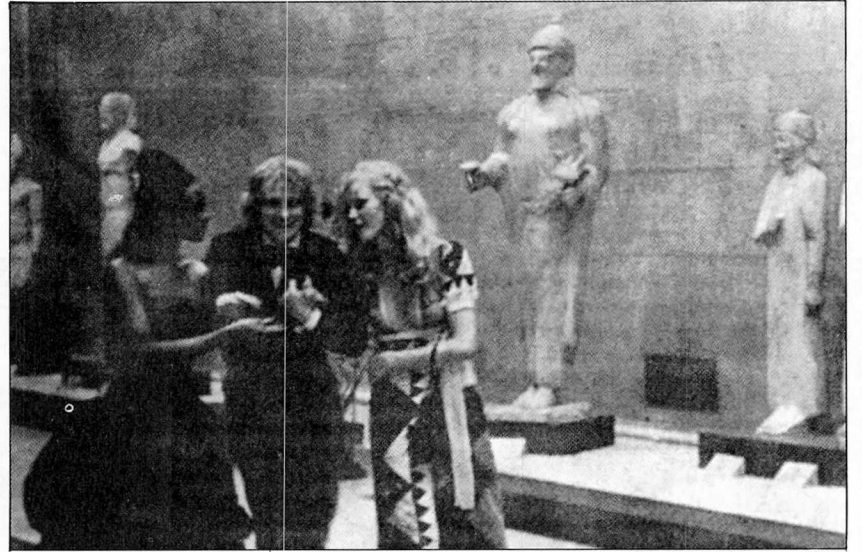
첫째는 박물관의 기하급수적 증가이다. 미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62~63년에는 3~4일에 1개 꼴로 박물관이 생겨났다. 고학력자의 증가와 역사강좌에서 배웠던 작품을 외국여행을 통해 직접 관람한 사람들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예술욕구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는 당시 미국의 미술사조의 주류였던 팝아트가

다. 확실히 팝아트는 미국인의 취향이며 예술 장르간의 수준이 높고 낮음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문화의 신기류를 간파한 호빙은 엔디 워홀의 작품전은 물론 상업포스터의 이미지를 이용한 제임스 로젠퀼스트의 'F111'展을 기획 전시했다. 이 두 전시는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사상 가장 이채로운 미술전시회였다.

호빙의 취임 첫 기획전 '왕들에의 알현'은 아주 현란하고 밝게 구성됐다. '미이라가 춤춘다'전에선 디자이너가 "나는 이런 저속한 서커스를 꾸며줄 수 없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호빙의 고집으로 벽과 전시케이스를 온통 울긋불긋하게 장식했다. 또한 건물의 벽엔 플래카드를 내걸고 메트로 사상 첫 기념품점을 설치했고 대혁명기간 동안 프랑스국민이 삼색 표식을 달고 다녔던 것처럼 관람객들은 금속 입장배지를 달고 관람해야 했다. 이 기획은 대히트를 쳤다. 첫날 개관식엔 11,000명이 관람했고 8주 동안 247,000명이 다녀갔다. 미국 전역의 박물관이 모두 '소메트로폴리탄'으로 변신했을 정도로 그의 기획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호빙은 1968년 미박물관협회 총회 연설에서 조직간의 유기성과 박물관이 국민의 고뇌를 치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같이 박물관의 민주화는 이런 고뇌의 한 단면이다. 예술박물관과 기요틴이 대혁명의 산물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따라서 박물관이 동시대의 기구 중 가장 정치화된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바 없다.

박물관은 위무·인간화·질적 균형을 돕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7대 관장을 지냈던 토마스 호빙(가운데). 그는 박물관이 사회 엘리트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파기시킨 박물관 행정의 '혁명가'이다.

기구라고 말한 호빙은 메트로를 전세계 예술 작품으로 가득찬 문화의 천국으로 만들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재미의 선물을 잔뜩 안겨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호빙은 큐레이터는 때때로 중개상·정치가·사기꾼·기회주의자들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태만상의 후원자 중 몇가지 예를 든다면 넬슨 록펠러는 그가 약정한 기부금을 내지 않았고 월 스트리트의 큰손 앙드레 메이요는 임원으로서 기대에 못미쳤다.

호빙은 작품구입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때론 말썽을 빚기도 했다. 1백만달러나 주고 구입한 그리스 항아리가 도굴된 것이라는 뉴욕 타임즈 보도 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대중예술주의자·연예인·전체군주이며 감

정가인 호빙은 대중예술주의자답지 않게 작품의 질은 박물관의 존립을 합리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그는 오로지 좋고, 더 좋고, 최고로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박물관을 위해, 결국 관람객을 위해 예술가치가 있는 작품은 손에 넣기 위해 쓸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모두 합리화시켜 준다고 믿고 있다.

그가 박물관 분야에 투신하기 전까진 엘리트들의 독점적 기구였던 것이 그로 인해 대단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작품의 질은 가장 파괴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자연 도출된다. 후에 루브르박물관이 된 나폴레옹박물관은 몰락한 사원과 처형된 귀족 대혁명패배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작품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최상의 것만이 보관됐다. 그런 최상의 것이란 과거 왕들의 것이었다. 혁명의 논리는 왕들에게 적합했던 것이 그들을 쓰러

“그 책 읽어 봤어?”
 “재미는 있지만 별로 얻을 게 없어!”
 “좋은 책이지만 솔직히 재미는 없더군.”

늘 한구석이 허전한 독서... 그러나 이제부터 정신세계사의 책으로 후회없는 책읽기를 경험하십시오

식물의 정신세계

식물의 놀라운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 흥미로운 실험과 그 뒷이야기들, 방대한 참고문헌.
 “참으로 흥미롭고 감동적인 책.....
 아! 이 겨울에 불일암 후박나무는 별로없이 잘 있는가?” (法頂 스님)

피터 톰킨스 외 / 황정민 외 옮김 / 504면 /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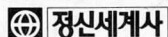
장편소설 神의 뜰에서 놀며

아마존의 오지로 들어간 백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그들의 총과 성경책은 쓸모 없는 쇠덩어리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용병과 선교사, 원주민과 그들을 지배하는 스페인 식민주의자의 후예들, 칼잡이, 창녀, 백인의 神과 인디오의 神들이 펼치는 아마조나스의 서사시.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아심작.
 피터 매티슨 / 김석희 옮김 / 전2권 / 각권 4,500원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뜻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찾아 인류 미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마을 열여덟 곳을 직접 가본다. 참된 노동과 헌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책.

울리버 포피노 외 / 이천우 옮김 / 376면 / 6,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 회원제 운영)

트린 시민들에게 적합한 것이다라는 점이다. 토머스 호빙의 작품 취득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앵커 바이블 사전」

빌 클린턴은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클린턴식 뉴딜정책과 뉴프론티어정신의 '新계약'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를 한 바 있다.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수상도 서쪽 점령지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유대 아와 사마리아로 언급함으로써 고대에 설정된 경계선을 상기시키곤 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암살되기 전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며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 보았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라고 불운한 운명을 예언한 설교를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연설문에는 곧잘 성경 구절이 비유 인용되곤 한다.

「앵커 바이블 사전」(THE ANCHOR BIBLE DICTIONARY) Six Volumes. 7,035PP. New York Doubleday)은 이 출판사의 편집장 데이비드 노엘 프리드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대교 기독교 등 여러 종파의 사람들과 함께 최초로 크고작은 세계토피에 초교파적 성경주석을 달아놓은 것이다.

가령 1849년~53년 하버드대 총장 제이레드 스파크스는 이름을 어디서 따왔으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의문이 나면 이 사전을 들춰보면 알 수 있다. 또 '시블레'가 어떻게 영어의

'암호'라는 말로 쓰이게 됐는지 역사적 언어학적 증거가 한 페이지에 걸쳐 소상히 나와있다.

간단한 참조를 위해서라기보다 흥미로운 읽을거리로써 수필도 수록돼 있다. 예를들자면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바오로'는 독자나 독서클럽의 주요 학습 주제이다. '법' 표제에 세 개의 별개 조항을 둔 것은 요즘같은 초교파적 시대에서조차 종파간의 원론적 불화가 꽤 뿌리깊음을 암시한다. '시리아-팔레스타인과 성경 고고학'은 예술의 현상을 요약한 것인데 미국학과 연구업적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동물학'은 방대한 분량의 관련서적 목록으로 살육기술 항목을 포함해 한곳에서 죽이고 다른 곳에서 먹는 슬레프효과를 다룬 고대 중동 동물의 생활과 날짐승과 길짐승, 들짐승과 가금은 종(種)마다 따로 기술해 놓았다. '식물학'은 히브리 성경과 신약성서에서 언급된 128가지 식물을 구분했다. 고고학 유물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보석류를 상세히 기술해 놓을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성경과 성경이전 체계를 컴퓨터로 시간분류함으로써 유용한 도해인 '달력'에도 기입시킬 수 있게 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언어'일 것이다. 이 항목은 '해독할 수 없는 언어와 원고'를 포함, 성경연구에 적합한 언어들로 쓰인 것으로 분량은 작은 책 만하다.

이 책의 각 권은 독립되게 다루어졌다. '창세기'는 '창세기이야기'란 표제하에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첫째 항목은 창조에 대한 서술과 가부장제 역사의 분석이고, 둘째것은

문학형식의 관찰이다. 문제는 이 개념을 성경 연구에 적용한 데서 발생한다. 의견이 분분한 '고대세계 관련작품'으로 '욥기' 항목은 성경 책에서 칼 융과 아치볼드 맥라이쉬의 저서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구분한다.

신약성서 해석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결코 논란이란 면에서 뒤지지 않을 '계시록'은 다양한 해석방법의 주제가 되고 있다. 또 성경이 쓰여진 헬레니즘-로마시대에 지중해와 고대 중동의 세계에 대한 눈부신 해석도 많다. '길과 하이웨이'는 족장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간 납포자들과 그리고 박해자인 헤롯대왕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간 성요셉이 택했을 법을 사막 대상루트를 일목요연하게 그려냈다. 한편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소 헛갈리는 인물의 다양한 성(姓)도 왕조로써 명확히 구분했다.

어떤 참고서적이든 항상 '추세'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시대의 특징을 띠게 마련이다. 서두에서 경고했다시피 학자들은 사실들을 의미있는 전체로 조합하는 데 있어서보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골몰하기 쉽다. 그래서 때때로 자의식적 방법론적 속고는 정도를 지나쳐 방해요인으로 보이지만 이런 범주의 초기목록에서 종종 빠지곤 하는 가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솔직함을 담보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성경에 쏟은 방대한 양의 학문연구, 특히 성경의 고고학·언어학·문학·역사를 집중조명한 이 책은 대학이란 폐쇄된 사회 울타리를 넘어 성직자들과 또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독서의 가치가 있

다. 참고서적으로서 크기와 가격이 다소 일반 독자들의 구입에는 걸림들이 되겠지만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책이다.

「스미소니언 책중의 책」

장구한 책의 역사를 단 한 권에 기록하거나 책이 문화에 끼친 영향을 항목별로 적어놓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마이클 올메르가 펴낸 「스미소니언 책 중의 책」(THE SMITHSONIAN BOOK OF BOOKS) Smithsonian)은 기록문자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몇몇을 요약해 놓았다. 이 책의 서두를 장식한 것은 BC400만년 전 중동에서 만들어진 점토서판의 기록이고, 말미에 이르러선 컴퓨터기술이 출판과 독서에 미친 영향으로 끝맺는다.

고대 로마의 누군가가 파피루스를 페이지 형태로 접기 시작해 현재와 같은 책의 모습을 갖추게 된 지 2천년이 된다. 그 대부분의 세월 동안 책은 수제품이었고 중동·극동의 종교서적, 켈트족의 아일랜드어책, 15세기 성경 등은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잡지저널리스트 올메르는 이 책에서 유럽에서의 출판의 영향, 최초의 출판자와 디자이너의 생애, 그리고 1455년에서 1500년사이엔 서적이 무려 1천만권이나 출간됐다는 등 출판산업의 성장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하지만 「스미소니언 책 중의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몇몇 기념비적인 사건에 대한 요약 외에도 그것에 관련된 부수적인 얘기거리인 것 같다.

운동생체역학

D.A. Winter 저, 강근 역, 신국판, 4,500원

이 책은 의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생체역학의 기초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번역되었다. 따라서 기계공학, 전자 및 전기공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생리학, 재활의학을 비롯한 인체(환자)의 움직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토질역학

윤충섭 외 8인 공저, 4.6배판, 양장, 12,000원

이 책은 여러 저자들의 오랜 강의경험과 고도의 실무기술을 습득한 기술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집필된 것으로, 한계상태의 개념이나 토질동역학 문제와 같은 새로운 이론과 이와 관련된 실험법을 요약하여 다루었다. 유효응력과 지중응력분포에 대한 것을 앞장에 두어 압밀, 전단, 토압 등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치반 처리에 필요한 사항도 첨가하였다.

국제정치학

송영우 저, 신국판, 350면, 6,500원

오늘날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조명해야 그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더이상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됨을 지적하고 경제에 기초한 시각에서 국가의 행위, 국가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오늘날의 세계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송병춘·맹원재 공저, 신국판, 316면, 5,500원

이 책은 식생활이 점차 풍요로워지고 또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이 유발시키는 각종 영양성 질병과 성인병의 발병원인을 쉽게 설명하고 또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이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경북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도서주문 450-3893 FAX: 457-7202